

한국과 중국 청두의 창업생태계 비교에 관한 연구: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곽혜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이무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세계 각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한국의 창업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창업생태계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서울, 중국의 청두를 지리적 표본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창업생태계에서 기술창업 중심의 창업보육센터 종사자, 창업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회, 경제, 정책적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먼저 창업에 대한 인식이 생계형 창업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창업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투자환경 내 투자자는 단발적 지원금 대신 합자, 지분 매수와 같은 적극적인 투자방법을 써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했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창업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창업인프라 조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창업생태계, 투자환경, 창업인프라, 창업의지, 중국 청두

I. 서론

이른 바 '창업 붐'이 지속되고 있다. 중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 해 2018년 1월 신설 법인의 숫자는 역대 최고치인 1만 41개다. 이는 한국에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신설 법인 개수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위워크 (WeWork), 헤이그라운드 (Heyground)와 같은 코워킹 스페이스 (Co-Working Space), 코리빙 (Co-living) 등의 개념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서울 곳곳에서 창업 관련 공간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배달의 민족, 쿠팡과 같은 스타트업도 해외 벤처 캐피탈에서 높은 투자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한국에 유니콘 기업이 생겨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의문을 자아낸다. 이웃나라인 중국이 2017년 기준 55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것과¹⁾ 대비하면 더더욱 아쉬운 숫자이다.

한국 창업생태계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은 해외의 선진 창업생태계를 벤치마킹하여 발전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창업-발전-성과-자금회수-재투자-재도전(이대기, 2014)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서 4단계에 위치한 자금 회

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2017년 말 넥슨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Korbit)을 인수한 것과 같이 최근 자금회수가 하나 둘 씩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것이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한국의 창업생태계가 성숙 과정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을 시작하는 기업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나, 창업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침체 상태에 빠진 좀비 기업의 수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와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의 창업생태계는 조금 독특한 양상을 띠며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중국의 서부대개발계획에 포함되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사천성의 청두가 그 주인공이다. 중국 청두는 소프트웨어 IT산업을 필두로 티엔푸소프트웨어파크(天府软件园) 등의 주거와 산업을 결합한 통합적인 창업단지를 조성하고 티엔푸신구(天府新谷)와 같은 거대 민간 창업단지를 보유하는 등 빠른 속도로 창업생태계를 성장시키고 있다. 이 역시 선진 창업생태계를 본떠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중국만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베이징, 상하이와 같이 성숙한

* 연세대학교 YVIP(Yonsei Venture & Innovations Program)의 'uGet Project 3-해외선진 창업생태계 연구'로써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됨.

** 주저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수료, sugarpie0401@naver.com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mooweon@yonsei.ac.kr

· 투고일: 2018-09-10 · 수정일: 2018-10-29 · 게재확정일: 2018-10-30

1)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중 52%를 차지하고 있음.

창업생태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청두의 창업생태계가 성숙의 과정 속에 있고 그로 인해 보다 활발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창업생태계에 보다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창업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기존의 창업생태계 모델(고정민·김정호, 2000)이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나 해당 연구는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벤처보육센터, 컨설팅사, 엔젤 등으로 대표되는 기반 요소에 집중하고자 한다(정대용, 1999). 이를 통해 창업생태계의 생산자(벤처기업)와 소비자(벤처캐피탈), 외부요소인 해외자본, 정부에 대한 인식과 실제 현황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벤처창업환경에 대한 연구로는 오영택(2002)이 정의한 벤처주도형 기업생태환경 모델에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적용한 보다 구체적인 ‘완전경쟁적 기업생태환경’이 있으나 해당 모델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벤처생태환경을 각각 대기업주도형, 벤처주도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오영택, 2002).

한국 창업생태계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수 있으나 한국과 중국 창업생태계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비교 연구 혹은 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는 없기 때문에 해당 연구는 정부의 역할이 네트워크를 중재하고 신뢰증개자로서 활동해야 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Casson et al., 2007) 한국과 중국 정부의 창업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또한 창업생태계 내 개체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기반 요소를 통해 지급하는 간접적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이론에 대한(박재환 외, 2012)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창업 의지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창업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객관적/주관적 창업환경으로 나누어지며 객관적 환경인 창업성공률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고용안정성 그리고 주관적 창업환경인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오상훈·하규수, 2013)과 기업이 정신이 창업 의지 고취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창업 성공과 제도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윤상호, 2013)이 있다. 또한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의지 약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론도 존재한다(오상훈·하규수, 2013).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 있어 실증연구 자료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는 객관적 창업환경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창업가의 인식이 창업의지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창업 실패에 대한 금전적 비용을 낮게 인식할 경우 창업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관점은 거시 환경을 분석한 다는 데에서 PEST 방식을 전체로 하나 기술 (T)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창업생태계에서 다루는 첨단기술이 발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AI, IoT 등으로 거의 일치하므로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한다. 사회적 부분에서는 각 창업, 창업가, 창업 환경, 기술 창업 환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여 창업생태계의 발전 단계와

형태에 따라 창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분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처로서의 대기업, 엔젤투자자와 같은 창업생태계 기반 인프라 요소의 역할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부분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창업 진흥 정책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창업인재들의 의견을 알아봄으로써 각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앞으로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연구의 지리적 표본으로는 한국의 서울, 중국의 청두를 선정한다. 한국의 서울은 가장 많은 투자자와 인재 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강남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창업보육센터와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이 활발히 상호작용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는 한국의 수도 중심화 특성을 바탕으로 서울이라는 넓은 시장을 확보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역시 기술창업이라는 특성과 현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좋은 표본이기는 하나,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도 결국 시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진출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서울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사천성의 청두는 창업생태계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1억 인구라는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어 중국 전체에 진출하기 이전에 청두에서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출시해 테스트할 정도로 시장의 순환역시 매우 빠르다. 그리고 중국 주정부-청두 시정부-고신 구정부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창업 진흥 정책과 비교적 저렴한 창업비용, 서부대개발계획에 따른 내륙이라는 지리적 단점 극복 등을 바탕으로 다른 창업생태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청두가 매우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는 창업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창업생태계에 보다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질적 연구 대상으로는 창업생태계의 제반 요소 중 기술창업을 다루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기술창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낮은 창업비용을 가지고 있고(정대용, 1999) 기술 창업을 바탕으로 한 선진 창업생태계인 실리콘 벨리, 실리콘 알리 등을 고려할 때 기술창업 중심의 창업생태계는 가장 활발히 새로운 형식, 제도의 도입과 인재의 유입, 유출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첫 번째로 엑셀러레이터 (Accelerator), 컴패니빌더 (Company Builder)와 같은 창업 관련 업계 종사자보다 더 다양한 창업가 표본을 접할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예시로 컴패니빌더를 찾는 창업가는 대부분 상장 직전까지의 과정을 마친 후기 단계의 창업가라는 것과 대비하여 창업보육센터에는 프로젝트 구상 단계의 창업가, 창업 구상 없이 아이디어만 가진 채 방문한 창업가, 그리고 프로젝트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어 프로토타입 제작 직전까지의 프로젝트 구체화를 마친 창업가 등의 스펙트럼이 넓은 창업가가 방문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다양한 표본을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가 각자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그에 맞는 창업 프로그램을 주선하는 만큼 창업보육센터 중심 창업생태계 연구를 통해 창업가의 마인드 셋(Mind set), 기업가정신과 같은 추상적인 부분에서의 경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쪼미기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창업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창업 초기 과정에 포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 창업생태계가 부작용을 고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해당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창업생태계 차이를 분석하고 중국 창업생태계의 강점으로부터 한국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해 한국의 서울, 중국의 청두를 지리적 표본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창업생태계에서 기술창업 중심의 창업보육센터, 엑셀러레이터 종사자, 창업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회, 경제, 정책적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2.1 창업생태계에 대한 선행연구검토

2.1.1 기업생태계(벤처생태계)

영국의 식물학자 Tansley(1935)는 생태계라는 개념을 환경, 생물군집, 생물 개체군, 생물 종 간의 총체적 시스템을 지칭하는 인위적 단위로서 생물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사고하자는 의미로서 사용하였다. 생태계는 생물 공동체인 유기체와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인 무기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 요소들 간의 체계적인 조직화와 평형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생태계 자체를 하나의 체계로 볼 것을 강조했다.(양현봉·박종복, 2011) 자연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생산 형태에 따라 구분해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은 스스로 생성-성장-소멸이라는 단계를 통해 자기증식, 유지하고 진화하는 메커니즘을 가진다. 여기서 생성-성장-소멸이라는 3단계는 벤처환경 속 기업의 발전단계와 흡사할 뿐만 아니라 벤처환경 역시 생산자-소비자-분해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벤처환경에 적용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고정민·김정호(2000)는 생물학적 생태계의 개념을 벤처에 적용한 벤처생태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는 자연생태계의 개념을 벤처창업환경에 적용하여 벤처기업(생산자), 벤처캐피탈(소비자), 그리고 회수시장(분해자)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가 순환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을 둘러싼 제도, 법, 입지조건

등의 인프라라는 무기적 환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대용·김영수(2000)는 벤처생태계 자체를 자발적 주체로 정의하며 생존과 이익창출에 대한 욕구와 활발한 성장, 진화, 융합 그리고 분화가 이루어지는 자기증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주장하며 시장의 원리를 철저히 반영하기 위해 변화 지향, 지식 공유 등의 문화 정착과 네트워크 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엔젤, 벤처보육센터, 연구소 등을 기반 제반요소로, 정부와 해외벤처를 외부요소로 정의하였다. 김태영·박제수(2006)는 벤처생태계를 이른 바 돌파적 혁신을 기대하는 모델로 정의하며 벤처창출을 위한 주요 구성 주체간의 진화 또는 공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혁신을 도모한다고 했다.

나아가 벤처생태계가 창업생태계의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창업생태계의 정의는 “창업생태계란 창업자, 대학/멘토/인큐베이팅 등의 창업 지원기관, 엔젤/벤처투자자/투자은행 등의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출연-확장-성숙-자기재생 또는 쇠퇴의 기본적인 생태계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창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환경”이 되었다(이대기, 2014). 이제호(2015)는 기존의 벤처생태계(고정민·김정호, 2000) 모델이 창업실패시의 경우를 포괄할 수 없고 벤처보다 더 넓은 개념인 창업에 부적합하다고 보아 창업 실패시의 분해 과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2.1.2 벤처생태환경

벤처생태환경에 대한 연구는 이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미시적인 환경과 거시적인 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거시 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정부 지원이 꼽히는데(Keely et al., 1990) 이는 벤처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Zahra & Covin, 1993) 벤처기업의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Sandberg & Hofer, 1987). 한국 벤처환경에서는 개별 벤처기업 대상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쟁 강도, 산업성장률이 벤처 기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갑·한상설, 2003).

Winter(1984)는 기업생태환경의 종류를 대기업주도형(Routinized Regime)과 벤처주도형(Entrepreneurial Regime)으로 나누고 이 두가지를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의 대안으로 삼았다. 대기업주도형은 말 그대로 대기업이 기술혁신을 주도하며 진입장벽이 높아 기술혁신을 위한 자본이나 기술인력 등의 자원의 유입과 유출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벤처주도형의 경우 신생기업의 진입과 활동이 용이하여 스타트업에게 우호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Winter(1984)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벤처주도형이 대기업주도형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오영택(2002)는 위의 벤처주도형 기업생태환경 모델에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적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상적인 기업생태환경을 정의했다. 완전경쟁적 기업생태환경의 전체 조건을 다수의 창업가와 자본가가 존재하고 기업의 생성, 진화, 그리고 소멸이 자유로우며 생태계 내 기업 및 구성원간 정보 공유가 용이할 뿐 아니라 기업 간 관계가 대등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기업의 가치창출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2.1.3 창업생태계 내 정부의 역할

정대용·김영수(2000)는 창업생태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과 강도를 조절하여 단기적으로는 자금 및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되, 중기적으로는 인프라 구축 및 인재육성 등 제한적인 분야로 그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박재환 외, 2012). Casson, et al.(2007)은 정부가 창업가적 네트워킹을 구축하려 하지만 네트워킹의 목적에 따라 그 형태와 적용 시점을 달리 해야 네트워킹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신뢰중개자로서 네트워킹에서 중요 역할을 맡을 수 있으나 모든 네트워킹을 중재하기는 어려우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기 연구는 네트워크 주체 각각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사회적 지원 그룹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했다. 창업생태계의 조성 및 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나 생태계 구성요소간 신뢰를 창출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는 데에서 그쳐야 함을 역설하는 셈이다(박재환 외, 2012).

2.2 창업의지

창업동기 (Entrepreneurial Motivation)는 창업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로서 창업 의도 (Entrepreneurial Intention)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창업의사결정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창업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반성식 외, 2013). 창업동기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고취시킴으로써 기업가정신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창업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창업의욕을 불러일으킨다면 창업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창업기업의 특성과 성공에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윤남수, 2012).

창업의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나이,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개인 특성으로 대표되는 내부 요인과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으로 대표되는 외부 요인이 있다.

먼저 사회적 단절, 심리, 육체적 성향, 전시효과, 가족요인, 그리고 사건예측이라는 5가지 개인적 환경요인을 창업의지 결정 요인으로 삼은 Martin(1984)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Greenberger & Sexton(1988)이 사회적 지원이라는 1가지 요인을 추가하여 총 6개의 개인적 환경요인을 창업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Reynolds(1992)는 경제적 환경특징과 경력환경특징이라는 거시적 요소와 개인의 성향이라는 미시적 요소를 모두 창업결정의 요인으로 보았고 Gnyawali & Fogel(1994)는 외부환경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정책,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나아가 Cuervo(2005)는 개인적 환경요인보다 경제적, 제도적 환경요인을 창업결정요인으로 들었고 경제적 환경요인으로는 거시경제적 환경, 산업 특성, 재무

적 환경, 그리고 지리적 환경을, 제도적 환경요인으로는 법, 제도적 시스템, 교육, 과학기술 시스템, 그리고 문화와 가치를 들었다.

김성순(2009)는 창업의지 결정요인으로 기업가정신과 성취욕구를, 배익건(2012)은 기업가정신 및 사업환경을 아우르는 창업동기를, 윤남수(2012)는 기업가정신을, 마지막으로 오상훈·하규수(2013)는 창업성공률, 경기상황, 보육제도 등의 객관적 창업환경과 마케팅 능력, 사업 조달능력 등 총체적인 경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대표되는 주관적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꼽았다. 객관적 창업환경으로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고, 적은 초기자본을 인식하며, 사회에서 창업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 수록 창업 의지가 상승함을 확인했다.

이재호(2015)는 최근의 연구동향이 외부 환경특성과 주관적인 창업 환경 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많이 관심을 가짐을 근거로 학계가 창업생태계상 무기환경의 중요성을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창업 의지 약화 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창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성공한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는 창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경력 선택으로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오상훈·하규수, 2013). 반대로 국내 창업생태계와 같이 사업 실패가 개인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의식이 팽배한 경우 창업자의 의지가 약화될 뿐더러 기업가정신 역시 약화되는데, 실제로 대출과 연대보증 등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국내 창업 관행으로 인해 사업의 실패가 개인 파산이라는 인생 전체의 실패로 인식되고 있다(이재호, 2015).

창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으로 인해 실제로 ‘창업했다 실패하면 개인신용 불량으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92.2%이나 나왔고 이로 인해 한국의 창업이 부진하다는 연구도 있었다(장후석, 2013). 이와 같은 사업 실패시 부담감은 창업의지 형성과정에서 의지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본질인 위험 감수 성향을 약화시킨다(오상훈·하규수, 2013).

그러므로 이재호(2015)는 현재 한국 창업생태계의 문제 중 하나인 창업 실패 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산시 개인적 책임이 면제되는 방식으로 자금공급 방식을 바꾸고 파산 면책재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업의 파산이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고 나아가 사업 실패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파산이 곧 재기라는 창업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박재환 외(2012)는 창업실패, 성공 경험자와 전문가, 자금지원기관을 함께 묶은 통합창업서비스기관을 조성함으로써 창업실패를 사례화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고 창업실패자에게 창업 재도전의 기회(Ucbasaran et al., 2009)를 부여하면 창업실패자를 멘토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2.3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Schumpeter(1934)에 의해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신기술 및 상품을 통해 수익창출의 기회로 구체화시키는 합리적 도전정신’으로 정의되었다. Miller(1983)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그리고 사전대응성으로 기업가정신을 구분하면서 제품과 시장의 혁신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대응해 경쟁자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자세로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였다. 2003년 유럽연합은 기업가정신을 ‘위험수용성, 창의성 및 혁신성을 새로운 조직이나 기존 조직에서 기업경영에 접목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정신자세와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대기, 2014).

윤남수(2012)는 창업 동기 요인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정신이 창업동기요인과 창업의지 사이의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유봉호(2013)는 기업가정신의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위험감수성, 진취성과 같은 창업자 심리특성과 창업성공가능성 간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알아냈다. 나아가 윤상호(2013)는 생산적 기업가 정신의 표출을 돕는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반성식 외(2013)는 기업가정신의 일상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창업의지 고취와 창업 이후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반드시 바탕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박재환 외(2012)는 진취성과 위험을 감수하는 창업가정신을 고취해야 창업가의 동기부여, 열정, 그리고 도전정신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혁신으로 이어져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III. 연구 방법

3.1 조사 개요

해당 연구는 면접 자료에서 주제별로 유사성과 상이성을 도출함으로써 현황을 그대로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연구 주제를 사회, 경제,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하여 원 자료를 축약하는 코딩(coding)을 실시했고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주제를 발견하여 유의미하다고 보는 주제분석 방법(Patton, 1990)을 적용하였다(박경애·방기연, 2007; 하정희, 2008; 박미진 외, 2009). 주제분석법은 한국과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편견에서가 아닌 실제 자료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발견하는 데에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3일~9일, 1월 26일~31일은 한국 서울에서, 1월 10일~25일은 중국 청두에서 창업보육센터, 엑셀러레이터 종사자와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생태계 관련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과 중국 청두 창업생태계의 비교 연구인 만큼 두 창업생태

계와 모두 관련이 있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평균 1시간 가량이었으며 면접 대상자에게 내용이 녹음될 것과 익명으로 처리되어 인용시 면접 대상자의 회사명으로 의견을 기술할 것,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구두로 확인하였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진행되어 기본적인 인터뷰 질문에 필요시 관련된 주제와 내용에 대한 후속질문을 덧붙이는 형식을 사용하였다.

중국어로 진행된 인터뷰의 경우 중국 거주 경험이 있는 학우의 도움을 바탕으로 번역본을 자료로 사용하였고, 개별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고 원문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나눈 다음 경향성이 있는 부분과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3.2 연구 대상자

한국 창업생태계를 대표하는 인터뷰 대상자로는 5명을 선정하였고 이 중 1명은 민간 창업보육센터, 3명은 국가급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1명은 창업가였다. 중국 창업생태계에서는 인터뷰 대상자로 14명을 선정하였고 이 중 11명은 민간 창업보육센터, 1명은 국가급 창업보육센터, 2명은 창업가였다. 중국 청두의 국가급 창업보육센터 인터뷰를 위해 서부과기원, 사천대학 등을 방문했으나 인터뷰를 거절당하였고 정보 공유 역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익명성 보장을 위해 참여자의 회사명을 이니셜 처리하고 이름이나 구체적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배제했다.

<표 1> 질적 연구 대상자 구성

회사명	국적	분류	비고
A	한국	민간	중국 북경대를 졸업한 담당자의 인터뷰 포함
B	한국	국가급	
C	한국	국가급	
D	한국	민간	대학교 창업지원단 소속
E	한국	창업기업	중국 청두 소재 글로벌 창업보육센터 소속 기업
F	중국	국가급	창업단지 내 육성기업, 창업보육센터 관리 병행
G	한국	민간	한중연계, CEO 및 임원진이 한국인
H	중국	민간	한중연계, 임원진 대부분 중국인
I	한국	민간	한중연계
J	싱가포르	민간	글로벌
K	중국	민간	글로벌
L	한국	국가급	한국정부 연계
M	중국	민간	코워킹스페이스
N	중국	민간, 창업기업	기업 내 창업보육센터 보유
O	중국	창업기업	글로벌 인큐베이터 소속
P	중국	창업기업	창업기업 기반 창업보육센터 창립/운영 중

* A, H에서는 2명, L에서는 3명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함.

3.3 질적 연구 질문 구성

인터뷰는 창업보육센터의 프로그램 등 창업 보육 관련 전반적인 정보, 창업/창업가/창업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미래 발전 방향,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 등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 창업 정책에 대한 인식과 실효성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하였다.¹⁾

<표 2> 질적 연구 질문 구성

분류	질문	비고
인큐베이터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주력으로 지원하고 있는 창업보육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그 실효성은?	창업가의 경우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지원을 받고있는지에 대해 질문
	인큐베이터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점기억에 남는 스타트업은?	창업가의 경우 인큐베이터를 접하게 된 경로와 선발과정에 대해 질문
정부 창업정책	정부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한국 /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인가?	
투자환경	한국 / 중국의 funding env.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인지?	
	정부를 제외하고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창업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ex 창업자의 재능, 능력,..)	
	한국/중국 창업만의 특징이 있다면?	
	당신은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현재 운영하는 스타트업/인큐베이터의 전망은? 미래 비전이 있다면?	
창업생태계 관련 인식	창업 생태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가?	
	한국중국의 창업 생태계는 창업자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중국의 청두가 창업에 있어 유리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한국 / 중국 창업생태계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하나씩 꼽는다면?	
	한국중국의 청두가 창업에 있어 유리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대기업/스타트업	스타트업과 대기업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면 이후 상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1) 인터뷰 전문 영어/중국어 버전은 부록으로 첨부.

IV. 연구 결과 분석

4.1 사회적 인식

4.1.1 창업 관련 인식

한국에서는 먼저 창업이라고 할 때 치킨, 피자과 같은 프랜차이즈와 같은 생계형 창업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주로 초기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가 찾는 D의 담당자는 "한국의 창업은 이른바 '생계형 창업'. 대한민국은 장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생들에게 창업을 얘기하면 온라인 홈쇼핑, 쇼핑몰, 유통 등에 그치는데 이런 프랜차이즈는 창업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런 부분이 창업에 대한 생각을 좁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창업은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스케일이 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L 중국 청두 지점 담당자는 "한국인들은 창업을 주로 요식업이나 유통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경우 본인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 경험이 남지 않고 단순히 돈만 날리는 것이 된다." 라고 답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창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창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하는데 특히 기성세대인 부모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들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및 교육이 필요하다(김성훈·남정민, 2016)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대로 중국에서 창업은 새로운 것의 개발 (P),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도적인 기술 (L) 과 같이 전반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온라인 기반의 IT 기술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IT창업을 대부분 창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은 창업을 떠올릴 때 프랜차이즈와 같은 생계형 창업을 떠올리는 반면 기술창업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창업 성공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창업, 장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창업시 비용 대비 이익, 매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성과 같이 수치화가 가능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중국에서 창업 성공의 의미는 비교적 추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창업을 통해 사회에서 신임을 얻고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을 창업 성공의 의미로 꼽는 사람이 많았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본인이 스스로 경험과 식견을 쌓아가는 것(H)을 넘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P),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와 인류에 의미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 (O)을 창업 성공이라 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4.1.2 대학생 창업(젊은 층의 창업)

한국의 대학생 창업에 대한 관심 정도는 낮게 평가되어, 창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으나 대학생이 활발히 창업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실제로 2015년

월부터 1달간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업가, 예비 창업가, 학생들의 현재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에 비해 한국의 창업환경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높았다(김성훈·남정민, 2016). 물론 창업을 하려는 대학생이 많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는 의문을 표했다. D 담당자는 "정부에서 창업에 대해 조금씩 홍보를 하니가 창업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된 정도이다. 아직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하지는 않아도 창업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이다."라고 하였고 C 담당자는 "창업 동아리 학생들은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보통 대학생들은 그다지 관심 없는 듯하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만큼 대학생 창업이 활발하지는 않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취업을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가."라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A 담당자는 "A에도 실제로 휴학을 오래 하면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옛날에도 대학생 창업가는 많았고, 지금도 많은 것 같다고 느낀다."라고 하였다.

먼저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D 담당자는 "우리나라는 창업이라고 하면 '부화뇌동'이라 할 수 있 듯,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 없이 잘 될 것 같은 데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 하였고 C 담당자는 "나는 창업 보육을 한지 4년차인데 사실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학교 안에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협상도 해야 하고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사회경험이 전무한 대학생이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며 대학생 창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대학생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게 평가되었으며, 대학생 창업이 매우 많을 뿐더러 심지어 대학교 1학년부터 창업을 하려는 분위기가 장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J)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I)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언급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창신창업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역시 창업 동기와 용기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F)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이 꼽혔고 두 번째로는 대학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부과기대와 같은 대학 소재 창업보육센터가 자리잡혀있어 굳이 타 창업 지원기관을 찾지 않아도 교내에서 창업이 쉽게 가능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전자과기대, 사천대와 같은 대학과의 연계 프로젝트 진행을 선호하나 앞에서 언급된 두 대학과 같이 대학이 자체 창업보육센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생들이 그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보육센터에 잘 오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K). 이외의 이유로는 중국의 대학 진학률이 50%를 밑돌을 정도로 높지 않아 대학 졸업시 소위 엘리트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인식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A), 중국의 경우 일자리 풀이 넓어 창업 실패시에도 대안이 있다는 인식에서 보다 쉽게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있다 (J)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대학생의 창업 선호 열기에 대한 우려는 존재했다. 창업 자체가 좋은 경험은 맞지만 아직 시장성을 갖춘 뛰어난 기술을 만들기 어렵고 (P) 현실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경영 능력과 같은 리소스를 발전시키기 어렵기 (K) 창업 성숙도가 낮아 실질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

4.1.3 창업가 관련 이슈와 평가

한국 창업가의 특징으로는 크게 시류에 맞춘 창업이 많다는 점과 고학력자이면서 젊은 창업자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먼저 작년에 VR, AR, AI와 같은 제 4차 산업혁명 관련 IT기술 스타트업이 많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렌드를 잘 쫓는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흐름의 이유로는 본인이 스스로 생활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느꼈거나, 새로운 창업 모델이 성공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목격하고 자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한국 창업가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자의 비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역시 또 하나의 특징으로 제시되었다. 그동안 창업가라고 할 때 40대 이상의 중년, 혹은 퇴직 후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이미지가 제시되었던 것과 반대로 지금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회사를 3-5년간 다니다가 창업을 시작하는 젊은 창업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창업가 자체가 젊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국 창업가의 특성은 젊은 나이에 창업을 시작하는 것과 다양한 수익모델의 추구가 언급되었다. 먼저 젊은 나이에 창업을 시작하는 창업가가 대다수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먼저 BAT라 불리는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와 같은 중국 내 IT 대기업의 CEO가 모두 젊은 나이에 아이디어 기반 사업을 통해 빠르게 성공을 이룬 뒤 이를 바탕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서부과기원과 같이 산학연계 창업보육센터가 잘 갖춰져 있고, 정부 지원 역시 활발하여 창업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쉽게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로 중국에서 창업을 시도하는 4, 50대의 퇴직자가 적은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주로 기업에서 일을 하다 나온 뒤 퇴직금으로 창업을 시작하려는 4,50대가 많은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어서 퇴직 이후에도 생활비 명목의 돈이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창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L).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준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특성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서양의 사업 형태와 반대되는 것으로써, 한 어플

리케이션이 큰 성공을 거둔 뒤 별다른 신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는 미국의 옐프(Yelp)와 반대로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바이두와 같은 기업이 위챗(WeChat)과 같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J).

4.1.3.1 창업 관련 이슈

한국의 창업 관련 이슈로는 먼저 창업 관련 교육을 받기가 어렵고 창업에 관심이 있더라도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대학 안에서도 창업 동아리를 제외하면 실제로 창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라는 평가가 다수였다. 뿐만 아니라 창업가가 자신의 기업가정신이나 기술 등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곳에 적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 역시 제시되었다 (A). A 담당자는 "우리나라 IT 창업의 경우 완성도가 낮은 편. 기술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와서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실패할 경우 이 비즈니스 모델은 안 먹힌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나. 디테일한 UI나 디자인 등에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펙'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특히 창업을 스펙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들과 진지하게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융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A 담당자는 "큰 흐름을 보면 창업을 커리어 점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정말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실 창업생태계 안에 모럴해저드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많기는 하나, 큰 판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은 큰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을 만들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들을 육성하고 수익을 얻겠다는 메인스트림이 있다."라며 이러한 이슈가 있기는 하나 전체 흐름에 문제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마추어적인 아이디어 혹은 마케팅 기술만 가지고 창업에 뛰어드는 창업가 이슈는 중국에서도 언급되었다. 중국 창업가들은 주로 시장 흐름을 보면서 일을 하는데, 이 경우 새로운 마케팅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나치게 기술이나 디자인적으로 부족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는 빨리 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창업가가 많다 (J)는 의견이 있었다.

4.1.3.2 창업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창업자의 전반적인 경영적 역량, 개방적인 마인드와 유연성, 그리고 민첩성 등의 개인적 요인이 제시되었다. 이는 창업가가 스타트업이 사업을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

는 많은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이는 오상훈·하규수(2013)의 연구에서 언급된 '자기효능감'이라는 주관적 환경으로 압축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외의 창업 요인으로는 인력 구성(E), 주요한 기술 (P) 등이 언급되었다. 먼저 경영적 역량으로는 마케팅, 유통 채널 관리, 정보 수집, 인적 네트워크, 직원 관리 능력 등이 언급되었으며 이러한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 (K)는 의견이 다수였다.

두 번째로 개방적인 마인드와 유연성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써 언급되었는데, 기업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고 활동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과 사업에 관련해서 보다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최신 기술이나 경영 시스템을 수용해서 자기 회사에 체화하는 능력이 언급되었다. 이와 반대 사례로 자신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프라이드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B), 타겟 시장과 완전히 다른 곳에서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타겟 시장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G).

학력 역시 두 나라에서 모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었는데, 먼저 학력이 높을수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가 유리하고 이를 통해 주변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을 모을 수 있어 팀 빌딩이 유리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벤처캐피탈의 스타트업 초기 투자 시 창업자의 학력 역시 평가 요인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 학력이 높으면 같은 아이템일 지라도 더 좋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학력 자체가 창업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중국의 경우 대학의 수가 많아서 소위 대학 순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커서 명문 대학을 나온다면 더 깊은 지식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때에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J).

창업 환경이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데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활발한 창업보육센터/엑셀러레이터, 학교나 학교 내 연구실에서의 기술 개발 도움과 같은 환경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 창업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I) 반대로 환경은 부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업가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F).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서도 의견이 서로 갈렸다. 기술이 좋지 않아도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을 만큼 단순히 기술력으로 창업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 (K) 기술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의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O)도 있었다. I 담당자는 중국에서 비교적 부족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분리수거 기술을 가진 한국 회사가 합자 형식으로 중국 청두에 들어오기로 한 것 (I)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첨단 기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4.1.4 환경 관련 이슈와 평가

4.1.4.1 환경의 중요성

한국에서는 창업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환경의 경우 인재의 유입과 유출이 활발하고, 자금의 순환이 원활해야 하며, 정부를 비롯한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창업가 주변에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가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그리고 창업을 진행중이거나 이미 성공한 창업가가 늘어날수록 창업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환경 조성 단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비교적 크고 실제로 정부 주도 창업 지원 센터로부터 윈스톱 플랫폼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입주기업들의 창업 성공률이 많이 달라진다는 의견도 있었다(B).

중국에서의 창업생태계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같았다. 창업생태계가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 투자자와 투자자본을 구하기도 쉽고 (J) 기관이나 파트너가 준비되어 있어 창업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타국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I)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창업보육 센터를 통해 법인 설립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시장에서의 도전, 난관, 고객들과의 관계, 그리고 기술 발전 등은 전적으로 창업가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창업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창업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K) 반대로 창업생태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인적 자원의 잠재력과 돌파 의지로 부족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E)는 의견도 있었다.

4.1.4.2 IT (벤처생태환경)의 장단점

한국과 중국의 IT 창업생태계의 장점으로서 빠른 창업 순환 구조, 첨단기술의 빠른 적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고학력 인재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내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데이터망 관련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 웹에서 앱으로 넘어가는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IT 업계 증진을 위한 인프라가 이미 준비되어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실질적인 생존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한국 창업생태계의 단점으로는 전반적으로 B2B보다는 B2C에 집중된다는 점, 그리고 좁비기업과 같이 정부의 지원금으로만 연명하는 기업 문제가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IT 업계 자체는 발전 가능성이 높으나 대기업과의 하청구조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D 담당자는 “업계가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한데 대기업과의 하청구조를 어떻게 깰 지가 관건이라고 생각. 아이티 종사자 얘기를 들어보면 벤더, 하청 등 외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사업을 개척하고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 밝혔다.

한 편 중국에서는 기술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창업가가 가

장 큰 문제로 거론되었는데, R&D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매일 앱 사용 빈도나 수익을 체크하는 근시안적 태도로는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산업의 특성, 기술, 아이디어의 발전 단계, 자신의 역량에 따라 창업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K)는 의견도 있었다.

4.1.4.3 지리적 장단점

창업생태계로서 서울의 장점은 대부분의 인재와 투자자가 서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시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시제품을 미리 출시에 시장성을 평가하기 좋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A 담당자는 "판교도 기술적 기반은 잘 되어 있으나, 시장 테스트를 위해서는 결국 서울로 나와야 한다. 예시로 세탁을 대신 맡겨주는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지역 기반의 배송시스템을 구성할 때 서울 전 지역으로 하니 작은 면적 대비 밀집된 인구로 인해 쉽게 구성할 수 있었다. 만약 경기도로 했다고 하면 너무 넓어서 일반화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강남 테헤란로가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대표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 안에서도 지역적 편향성이 매우 심하다는 단점 역시 제시되었다. 실제로 디캠프(D Camp), 스타트업 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와 같은 대형 민간 창업 인프라가 강남에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C 담당자는 "우리나라 비즈니스 90%는 서울 강남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금융기관도 다 모여 있고 인구도 가장 많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자체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다고 생각. 디 캠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같은 거대 민간 창업보육센터, 투자기관들도 다 거기 모여 있고 코워킹스페이스도 그쪽에 자연스럽게 많이 생긴다."라고 했다.

이와 다르게 창업생태계로서 청두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사업비용 절감 효과, 고신구와 청두시 정부의 창업정책, 그리고 높은 발전 가능성이 꼽혔다. 가장 먼저 낮은 물가와 집값, 인건비 덕에 청두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로 인해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1선도시에서 지내던 창업인재 혹은 고학력자가 청두로 이사를 오는 경우도 많다는 의견 (I)도 있었다. 물론 청두가 아직 발전이 많이 되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비교적 물가가 낮은 것도 있지만, 한중창업단지인 고신구 정릉국제광장(菁蓉国际广场)의 입주 기업 혹은 창업보육센터 직원에게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 (450위안, 한화 76,500원)에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정책 덕분에 거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체감 물가가 비교적 낮다는 의견 (F)이 있었다. 청두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션 파크나 고신구 정릉국제광장에서 저렴한 임대료에 사무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드는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이나 호적 등록 같은 제반관련 혜택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창업가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L)는 의견이 많았다.

이 두 가지 장점을 바탕으로 청두는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국제 창업보육센터 K의

담당자는 “청두는 정부가 정한 창업 고지 중 하나로서, 준1시 엔도시(국가급 중심 도시) 라서 온 것이 크다. 물론 아직 발달은 많이 되지 않았지만 고신구와 청두시의 지원 정책이 좋아서 온 것도 있고 이곳에 기술 관련 기업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온 것도 있다.”라며 청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으며 G의 담당자도 “청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선진 창업생태계를 벤치마킹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물론 실수도 하지만, 모방한 것을 넘어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신기하고 앞으로 선진 환경을 따라잡는 데에 더 짧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 장점으로 언급된 것은 전자과기대와 같은 첨단기술 관련 대학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서 고학력 인재를 얻기 쉽다는 점 (P), 분지라는 청두의 지리적 특성상 낙천적이고 소비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 시장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점 (G) 이 거론되었다.

반대로 청두가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중국 4대 도시보다는 투자 자본과 투자자 수에 있어 부족하여 아직 완벽히 자리잡은 창업생태계 인프라를 갖추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J), 내륙에 위치한 청두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공장 설립이나 물류 관련 불편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L). 또한 행정 시스템 역시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 과정의 간소화로 인해 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G)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두의 창업생태계는 중국 서부에서 최고의 발전 속도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4.2 경제적 인식

4.2.1 창업실패, 재도전과 투자환경

4.2.1.1 창업 실패, 재도전

현재 한국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재도전이 어렵다는 인식이 주를 이룬다. 창업 실패 역시 창업 과정 중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창업 실패에 대한 불안의 원인으로는 취업시장의 침체로 인해 창업실패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 생계형 창업이라는 비교적 좁은 사고방식, 그리고 창업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창업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창업비용에 대한 부담과 한국 창업생태계 자본 조달의 관행으로 인해 창업 실패가 창업가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창업성과와 실패경험을 사회적 자산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박재환 외, 2012)는 의견이 많았다. B 담당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업 실패를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확률 높고, 애초에 재도전 시스템이 잘 뒷받침되어 있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창업자들의 금전적인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창업

해서 실패하면 재기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다. 올 인해서 실패하면 파산하고, 영영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되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창업 전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나 컨설팅 기회를 잘 활용해서 사전적으로 사업 준비 기간을 많이 두어야 한다."라며 창업으로 인해 개인 파산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큰 창업 제약 요인이 됨을 역설했다. 하지만 창업 실패가 수반하는 비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창업 실패와 재창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A 담당자는 "한국에서도 이전보다는 창업 실패나 재창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게 되었다. 창업에 드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입주할 수 있는 무료 공간이 많고 (A도 무료로 입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기보, 신보에서 돈을 이자 없이 대출 받을 수도 있고, 정부에서도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창업도 하나의 경력이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어떠한 아이টে를 어떻게 해봤는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창업을 하나의 경력으로 쌓는 사람들도 있기에 창업 실패를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느낀다."라며 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중국은 이와 반대로 창업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창업 실패를 당연한 절차이자 창업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법칙이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창업 실패의 원인을 창업가 본인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 창업 환경의 미비, 아이টে의 시기성, 시장성의 부족과 같은 환경적 요소로 꼽았다. O의 창업가는 "실패로부터 창업가들은 늘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되는데, 나 역시 O 이전에 2번이나 실패했다. 창업 실패를 겪으면서 나의 패인을 분석하고 나의 사업 아이টে를 정비했고 창업 환경이 정비된 2년 전부터 창업을 다시 시작하여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창업 실패 자체를 재도전을 위한 기반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비교적 창업성과와 실패경험을 자연스럽게 사회적 자산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박재환 외, 2012).

이러한 태도는 주로 아이디어 기반 기술 창업이라는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비롯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자신의 창업이 실패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또 다른 투자 파트너를 만나 재도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고치거나 폐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된다는 인식에서 비교적 낙천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의견도 있었다(L). 그리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중국의 일자리 시장이 굉장히 넓어 일자리를 구하기가 비교적 쉽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또한 중국의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아 대졸자의 경우 본인이 엘리트라는 인식이 있어 일종의 사회적 책임감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2)

재창업을 돕는 요인으로는 신념, 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이 가장 많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재창업을 위한 정책적 기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중국 정부는 우수한 기업 배양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기업에게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P), 별다른 정책적인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F)와 같은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나 정부에서 이미 재기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두었다(H)는 의견도 있었다.

4.2.1.2 투자환경

한국의 투자자는 중국에 비해 비교적 위험 회피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창업단계에서 과감한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공격적인 벤처투자자들과 경험 많은 경영진이 필요하다(양영석 외, 2012)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투자환경에 있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다. 아직까지 투자에 소극적인 벤처캐피털이 많고, 이로 인해 투자 환경 자체는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벤처캐피털 역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기 어렵고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을 평가해야 하는 벤처기업은 성공요인으로써 창업자의 배경적 특성인 창업자 연령, 교육 수준, 경영 경험 등과 창업자의 성취욕구, 위험 감수 성향과 같은(정대용·김영수, 2000) 정성적인 부분만을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 자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 배달의 민족과 같이 검증된 기업만이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첫 번째 이유로는 벤처캐피털을 비롯한 투자처가 창업 초기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대부분 창업가의 마인드, 창업 프로젝트의 구체화 정도, 현실화 가능성과 같은 정성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이 정량화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제시되었다. 불확실한 투자에서 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보다 융자 지원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씨드머니 (Seed Money)수준이라 작지만 전체적으로 육성 기업 수를 늘려 투자회수를 할 경우 높은 수익을 거두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두 번째로는 아직 한국의 창업생태계 선순환구조에 있어 회수-재투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었는데, 실제로 2017년 후반에 벅슨이 가상화폐 거래소 스타트업인 코빗 (Korbit)을 인수함으로써 처음 엑시트가 생긴 것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창업생태계에서 벤처캐피털이 투자자금 회수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투자에 있어 소극적인 태

도가 형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세 번째로는 한국에도 인베스트 코리아 (Invest Korea), 코트라 (L)와 같은 투자 지원기관이 있으나, 현재 산재되어 있어 전담 기구를 찾기가 어렵고(이지석·권종욱, 2010) 현재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스타트업 평가 기준을 제정하여 투자 목록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배포하기 보다는 과학기술 발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벤처캐피털이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투자 환경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향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김성훈·남정민, 2016) 최근에 회수를 처음으로 경험한 것과 같이 앞으로 자금 회수를 많이 경험한다면 회수-재투자의 비중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며(A), 실제로 펀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 곳 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SBA, 창업디딤터를 비롯한 창업보육 센터에서는 투자 지원팀을 신설해 자체 펀드를 운영하고 타 펀드와 매칭해주는 등의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안에서도 창업자들이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피칭 (Pitching)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었다.

중국의 투자자는 한국에 비해 적극적이고 낮은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투자환경 역시 창업 자금 네트워크 (PPP: 정부, 회사, 개인)가 잘 뚫려있고 금융 관련 서비스를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 창업가의 경우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어디서든 용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국 투자 환경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실제로 단순 융자보다 투자 지분을 사서 합자 형태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점이었다. 벤처캐피털의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역시 합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에 있어 경향성은 찾지 못했으나, 중국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확보하여 성공 시 더 높은 이득을 얻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업에 있어 관계 문화를 바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얻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두 번째로는 투자 환경의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며 이것이 중국 창업 정책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었다. 2016년에는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공유경제 관련 사업이 매우 유행하여 Oppo, Didi와 같은 공유경제 아이템이 높은 투자자 선호를 바탕으로 급속 성장했으나 2017년에는 정부의 주력 사업이 AI, 의료 산업, IoT 등으로 바뀌어 해당 기술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K). 세 번째 특징은 중국 정부의 문호 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IT분야의 중국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M&A와 해외 기업 간의 교류를 바

2) 2000년대부터 대졸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대졸자 수가 700만명을 돌파하여 대학 진학률이 50%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로부터 엘리트 의식이 비롯된다는 논리는 비약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탕으로 글로벌 브랜드로써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중국 업체 혹은 벤처캐피털에서 기술 교류를 위해 한국의 기술, 투자 박람회 등을 찾는 일도 잦았고 관련 업체에서 한중 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찾아 적극적으로 기술 투자처를 소개받는 등의 일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G, H).

4.2.2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관계

‘질 좋은 창업’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자금, 엔젤투자금 뿐 아니라 선도기업의 전략적 투자금과 같은 초기시장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달려있다(양영석 외, 2012). 한국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관계는 아직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앞으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반찬을 비롯한 음식 배달 사업의 스타트업 더반찬이 동원에 흡수된 것, 네이버에서 패션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한 것 등이 예시로 언급되며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협업을 장려하는 태도는 아직 관찰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로 조사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창업생태계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애초에 스타트업이 스스로 살아남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대기업이 굳이 스타트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대기업 소재 엑셀러레이터와 같은 상호작용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롯데 엑셀러레이터, 하나은행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비롯한 기관이 생기고 있기는 하나 창업생태계에 자리 잡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곳을 장악하거나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아직까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지적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생기고 있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다수였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A 담당자는 "대기업이 현재 돈은 있지만 스타트업이 보유한 회원 수가 엄청 많고 이미 시장에서 굳은 입지를 다졌다고 하면 대기업은 아이디어를 빼거나 시장에 새로 침투하기보다 스타트업을 사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럴 경우 인수, 협업이 많아질 것이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이라며 스타트업 역시 자본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유통망, 고객수와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 미리 격차를 벌려둘 경우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음을 밝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원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직접경쟁을 피하고 집중화/틈새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이장우, 장수덕, 전계논문) 확인했다. 스타트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창업생태계 자체가 활발해지겠지만 이 경우 대기업 역시

창업기업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창업 선순환구조 구축(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이 가능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이대기, 2014).

중국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관계의 역시 대부분은 한국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으나, 대기업 주도형 창업생태계라기보다는 벤처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이 된 것이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서는 먼저 창업생태계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빼기는 일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 대기업이 가진 자원의 규모가 매우 크고, 대기업 입장에서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보다 비슷한 아이디어로 신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드는 전반적인 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빼기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K).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비교하여 꾸준히 자금을 투자받기가 어렵고, 유통/마케팅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L).

그러나 중국에서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과 인수/합병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협업의 경우, 청두의 텐센트와 같은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기업도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중국 내 스타트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중국의 교통카드 전문 공기업 ‘천부통(天府通)’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내 지문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징룽국제광장 역시 건물의 주차장에 창업 보육센터 내 센서 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스타트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므로 아이템, 고객 수와 같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실질적으로 구매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면, 스타트업이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대기업 역시 단순히 아이디어를 빼기기보다 인수 혹은 협업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다(J).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 역시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시장 적용이 매우 빠른 만큼 시장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본인의 아이디어에 새로운 기술을 잘 접목시킬 경우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G). 예시로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하여 위챗 마켓에서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H).

4.2.3 민간투자자 접근성

기술창업프로그램은 투자자를 연계해줄 때 엔젤투자, 공공펀드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양영석

외, 2012). 그러나 한국 창업생태계에서 엔젤투자자를 비롯한 민간 투자자의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가 창업보육센터/엑셀러레이터를 찾아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엔젤 펀드, 클라우드 펀드 등의 조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엔젤 투자자는 단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의 역할을 넘어 창업가에게 사업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한다는 데에서 스타트업 성공과 존속의 중요한 요인이 되나, 성공한 창업가의 경우 성공 이후 멘토로서 자신의 창업 성공 경험을 전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리콘밸리를 보면 엑셀러레이터나 창업보육센터에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창업 관련 경험을 나누는 활동이 활발하다. 그런데 한국은 성공을 하면 세미나를 요청해도 못 온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성공한 만큼 베푸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중국 창업생태계에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가 창업보육센터 혹은 창업 기업에 직접 찾아와서 특정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거나, 창업보육센터에서 직접 투자 설명회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K).

4.3. 정책적 인식

4.3.1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한국의 창업 지원 정책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정부에서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열정이 뛰어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 원하는 분야/업종 등을 파악해서 이에 맞는 민간 육성기업을 매칭해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와 같은 비금전적인 부분 역시 지원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B 담당자는 "10년 전 2008년도의 창업 보육 시스템이나 기업 지원 사업과 지금을 비교하면 종류, 규모, 실효성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외국의 선진 창업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단순히 관 주도의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민간 전문 기업과 매칭을 시켜주고 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 측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정부 지원 시스템이 보다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지원 정책 자체는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창업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D 담당자는 "정부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나 열정이 뛰어난 편. 현장에 있으면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었다고 생각하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 약하지 않나 싶다.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이걸 실용적으로 사

용하기 위해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 자원이 적재적소로 투입될 수 있는 루트가 생겨야 한다는 점이 앞으로 발전해야 할 부분이다."라 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한국의 창업 지원 정책이 창업 초반 부에만 극도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이로 인해 창업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그 만큼 창업 성숙도가 떨어지는 좀비기업의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창업 초기에는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시제품 제작까지는 정부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이후 창업 연수 제한, 기지원 사업의 지원 불가 항목과 같은 규제로 인해 초기단계를 벗어났지만 아직 중견기업에는 도달하지 못한 어중간한 위치의 기업들의 경우 갑자기 지원 가능한 과정이 급감하게 된다는 의견이 언급되었다(E). 때문에 창업 후의 사후관리 등 중장기적 관점이 부족하고 정부의 정책지원 관련 성과 지표가 없어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고 나아가 정부정책 지원의 성공 모델을 정립하기 어렵다(박재환 외, 2012)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단기 성과주의와 관료주의 역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다. D 담당자는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1년 안에 끝나는 단기 사업이 많아 스타트업 창업자가 시제품을 만든 후 유통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과 같은 창업 지원 과정을 스스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단/장기 사업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다."라며 단기 성과주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C 담당자는 "우리 같은 정부 소속 창업 센터는 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온다.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창업 보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매니저들이 기업들을 면밀하게 보육하고 도와주는 일보다 받아온 사업비를 소진하는 데 집중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사실 창업 보육 매니저가 해야 하는 일은 창업 기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을 타왔을 때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내년도 예산을 깎아버리기 때문에 스타트업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 사업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고 기업들을 밀어 넣고 기업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프로젝트까지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큐베이팅에 쏟는 시간보다 정부 지원에서 받은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훨씬 많아서 아쉬움이 있다."라며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 주객전도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B 담당자는 "물론 창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가고 다양한 스타트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는 우호적이다. 그러나 막상 그런 지원 사업들이 과연 정말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면 조금 모순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엄청난 업무 성과를 요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는 지원사업들이 정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냥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테니 신청하고 싶은 기업만 신청하라는 식의 방식도 있다. 물론 예전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관료주의적인 것들이 남아 있다. 특히 문서작업이 그러한데, 문서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음. 이 센터도 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업들한테 지원해주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음. 사업 환경에 맞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문서작업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지나친 정부 지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했다. 그러므로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가 정부 업무가 될 경우 단기적 성과지향으로 인해 형식주의로 바뀌고 형식과 요건에만 맞추는 창업 교육, 창업 자금 지원과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정대용, 1999).

지나치게 많은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이 쉽게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점 역시 한계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나아가 C는 "정부에서는 창업 열기를 일으키고자 많은 돈을 들이고 있고,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센터도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들을 만나보면 규제적인 측면에서 완화된 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예전에도 카풀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등장했을 때 택시 업계와 충돌이 심해서 간단회까지 열리지 않았었다. 우리나라 창업 지원 정책은 대부분 민간이 아니라 정부 주도인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택시 관련 규제를 풀어버리면 기존의 택시 업계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규제를 바로 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이 심각하게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공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해서 규제 부분에 벽은 아직 높다."라며 높은 규제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국 역시 정부에서 '만중창업', '창신창업'등의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창업 부흥을 위해 열정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가장 큰 장점으로 기업의 성장률에 맞추어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이 꼽혔다.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은 하나의 성공적 창업이 아니라 창업 성공의 지속적인 발생이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으므로 성공모델 별로 창업 지원방식과 규모를 달리하는 것이 좋다(박재환 외, 2012). 창업 초기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한국과 반대로 중국은 성장 단계에 맞춘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실적이 좋고 오랫동안 지속한 스타트업에 더 높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P)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주거지원, 현지 사무실 지원 (E), 해외 유학생과의 국내 유치를 통해 부족한 기술 인력을 채워주는 등 (P)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창업자들을 대학생 / 海归 (화이과

이, 유학생) / 재창업자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역시 중국 창업 지원 정책의 특징으로 제시되었다. 예시로 징룽국제광장의 현지 사무실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보육센터, 기업, 상가에 따라 정책을 차별화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으며³⁾ 인테리어비용도 지원하고 있었다. 기업 역시 월세는 무료이나 인테리어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상가는 첫 해에 월세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인테리어 비용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티엔푸소프트웨어파크에 위치한 창업장도 주거/사무실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인큐베이팅 기업에는 최장 1년 동안 사무 공간을 대여하는 비용을 5만~500만 위안 (한화 1 천만원~1억 원) 가량 지원하고 있으며, 4인 아파트에 월 600 위안 (한화 11만원)만 내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정부가 창업생태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만큼 기업이 정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정부의 개입 자체가 시장의 균형을 위배하는 것이라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K). 또한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창업가 중심의 창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50만 위안(한화 8천 5백만원) 이라는 자본금을 등록해야만 200만 위안(한화 3억 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력이 없는 학생 위주의 스타트업은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전시/박람회 참가 비용의 70%를 지원해주는 정책 자체는 좋으나 사후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을 경우 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특히 청두의 경우 창업 지원 시스템이 아직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지원/실행 정책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법인 계좌 설립이나 정식 수출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심한 경우 세관 통과가 되지 않아 제품을 수입해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2017년 4월부터 자유무역구로 지정된 고신구 징룽국제광장의 경우에도 정책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외자 회사의 자본금 계좌 등록이 3개월동안 지연되어 회계 처리 손실을 본 회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G).

4.3.2 정부의창업단지 조성 방식

정부 주도의 창업 단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 지원 사업이 단순히 창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조직이 활동하는 부분까지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충돌하는 일이 생긴다는 의견이 많았다. 창업정책은 창업가정신 제고에 근간을 삼고 이해관계자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창업

3) 월세는 1 제곱미터당 27위안이며 관리비를 따로 계상하나 창업보육센터에게 1 제곱미터당 4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는 월세가 0 위안으로 기재된다(F).

생태계의 인프라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박재환 외, 2012). 중국 대학을 졸업한 A 담당자는 "우리나라는 보통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시창업허브와 같은 지원기관을 운영한다. 민간에는 A 같은 조직이 있고 협업, 경쟁을 하면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중국도 정부가 주도한다는 부분에서는 같은데 민간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창업기지를 만들어 두고 그 안에 민간이 들어가서 일하도록 돕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며 한국은 창업기지 건설에 있어 비교적 좁은 스케일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창업 단지의 경우 기술, 창업 관련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나 궁극적으로는 단지 안에서 생활하면서 보다 밀접하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창업생태계 안팎의 인재 유입과 유출이 자유로워지고 나아가 창업생태계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생태계 자체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때문에 창업생태계 안에서 활동하는 인재의 수를 늘리려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육성 기관을 만들고 기술 인프라를 구축시키는 노력에 집중할 뿐, 싱크탱크 (Think Tank) 건설과 같은 총체적인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뿐만 아니라 예산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창업 단지 조성에 실패한 사례도 존재했다. SBA의 경우 성수 IT 특화 산업 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수제화, 인쇄 회사 등 아이티와 큰 상관이 없는 산업이 밀집되어 있었다. 성수 아이티종합센터라는 지원기관이 처음 개관된 2011년에는 서울시와 성동구가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에 여러 아이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후 성동구에서 밭을 뺐고 시의 지원도 호지부지되어 현 상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B).

반면 중국의 정부 주도 창업 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한국의 창업단지가 보통 기술, 업무 관련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으로 기술되는 반면 중국은 기술, 업무 관련 빌딩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지낼 수 있는 아파트, 문화 생활 공간, 창업카페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과 비슷하나 임대료가 없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창업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와 같은 창업 외적 시설을 포괄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예시로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파크인 '티엔푸소프트웨어파크'의 경우 구역을 나누어 기술, 업무 빌딩과 주거 공간을 구역마다 배치하고 있다. 티엔푸소프트웨어파크 D구에 위치한 创业场 (창업장, 티엔푸 창업 보육센터)는 창업 카페인 Idea Cafe와 업무 관련 빌딩이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그 주변에 주거 공간인 아파트를 함께 지어 둠으로써 스타트업 유묘장 (창업보육센터),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2007년 9월 청두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고신구관리위원회 주도로 설립된 모바일인터넷 혁신형 창업보육센터로, 현재 스타트업 유묘장 (창업보육센터)-엑셀러레이터-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창업 창업보육센터 시스템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코워킹(Co-Working; 함께 일하다)의 뜻을 넘어 코리빙(Co-Living; 함께 살아간다)은 코리빙의 개념을 창업단계에 접목시킨 것으로서, 총체적인 창업 단지 조성을 통해 창업 기업 간 업무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실생활에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문화생활, 주거 공간과 같은 창업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기본적인 생활의 기반을 갖춰놓음으로써 타지, 혹은 다른 나라에서 사는 창업 인재가 새로운 창업 생태계에 진입하는 데에 드는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 창업생태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은 창업 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먼저 정한 다음 단지 건설을 시작하는 한국과 달리 먼저 낙후된 지역에 찾아가 정부가 지역의 건설업자에게 창업 단지 건설 의뢰를 맡긴 다음, 생활 인프라가 조성된 다음에 해당 단지에 입주할 기업과 창업보육센터를 모집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총체적인 산업 단지를 만드는 데에 보다 이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A).

그러나 중국의 모든 창업 단지가 이처럼 총체적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주거/문화가 결합되지 않은 채 교외에 자리하거나 IT 기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지어진 창업카페/창업보육센터는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 예시로 대학생 창업 전문 창업보육센터로서 출범한 국가급 창업보육센터인 티엔푸 혁신센터(天府创新中心)의 내부에 위치한 창업카페 십분커피(十分咖啡), 샤오미의 창업자 레이첼이 세운 광구 창업카페(光谷创业咖啡)에 실제로 방문해보았을 때 문을 닫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둘 다 IT 창업단지와 동떨어져 있었으며 근처에 주거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네트워킹 효과가 저하되어 자연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보였다.

4.3.3 지리적 편향성

한국의 창업생태계는 지리적 편향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에 대부분의 투자처와 창업 인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창업생태계의 인프라를 갖춘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서울의 강남 테헤란로가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대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디캠프,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같은 대형 민간 창업 인프라가 강남에 형성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성수를 비롯한 서울 내 타 창업 단지의 경우 아이티 특화지구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관련이 없는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투자처의 부족으로 인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창업 단지 조성에 실패한 사례도 존재했다. SBA의 경우 성수 IT 특화 산업 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수제화, 인쇄 회사 등 아이티와 큰 상관이 없는 산업이 밀집되어 있었다. 성수 아이티종합센터라는 지원기관이 처음 개관된 2011년에는 서울시와 성

동구가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에 여러 아이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후 성동구에서 발을 뺐고 시의 지원도 흐지부지되어 현 상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B). 이를 통해 주정부와 지자체간의 연계 없이 창업 정책이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어 정책의 중복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양현봉·박중복, 2011)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자신만의 창업 지원 정책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편향성이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중앙 정부에서 '만중창업' 정책이라는 표어가 발표된 이후 청두시, 고신구를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에서 그를 바탕으로 각자의 지역 특색에 맞게 창업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주도적 추진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다(이지석·권중욱, 2010)

그 예시로 고신구 정부는 징룽국제광장과 같은 한중 창업 클러스터를 구성함으로써 창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청두 시 정부는 IT 특화도시라는 이름 아래 창업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을 모토로 큰 성과를 거둔 우한시의 시장이 청두에 부임하여 자본금 설정, 법인 설립과 같은 창업 관련 행정 시스템 역시 창업 친화적으로 바꾸는 등의 활동을 통해 총체적인 창업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L).

지자체간 긍정적인 경쟁 체계 역시 돋보였다. 사천성, 청두시, 고신구 정부 모두 각자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창업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양상을 따라 사천성 바로 옆에 위치한 하이난성과 같은 근접 지역에서 과학기술 우수인재에게 최대 500만 위안 (한화 8억 5천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주는 등의 경쟁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P). 이처럼 성마다 서로 다른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기술이 낙후된 지방에서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해 이미 창업 인재가 많이 모인 지역에 방문하여 창업가를 설득하는 것과 같이 공격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3.4 외국 자본 투자 유치 노력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사업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고 투자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조세감면, 조세 환급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와 투자비용 보조, 도로, 철도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건설, 고용 및 공장부지 저가 제공 등의 금융/자금지원 인센티브로 나누어진다(이학노, 2009).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자본은 고용 창출, 투자국의 국제수지 개선, 선진 경영 기법 등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지석·권중욱, 2010). 하지만 한국의 외국 자본 투자 유치 노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은 1997년까지 규제와 관리 방식을 채택하다가 1998년 이후 촉진/지원 중심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을 통해 투자인센티브 제공, 외투 자유지역 지정 등을 추진했다. 이후 2003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타겟 투자기업을 유치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고 이후 2008, 2010년에 법 개정이 재차 이루어졌으나(이지석·권중욱, 2010)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로써 첫 번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 투자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업종을 정의하고 있을 뿐, 중국과 같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외투 제한 업종은 없으나 소유 한도, 인허가 절차 등의 제한 규정이 따로 마련된 분야가 정해져 있어 비즈니스 서비스(법률, 공학 등)와 통신 등에 대한 개방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이로 인해 2005년에 추가 개방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을 비롯한 타 분야의 제한이 심한 편이며 이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한 제외업종의 경우 역시 이제 현실적인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평이 많다.

두 번째로는 투자유치기관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시 조세 감면 신청과 건축 허가 등의 관련 업무를 투자자가 직접 유관 부서에 각각 방문하여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언급되었다. 이는 투자 유치 관련 기관 혹은 창업 단지에서 적극적으로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청두의 환경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세 번째로는 한국 역시 자유무역구가 있으나 창업 단지 안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도모하려는 목적 보다는 수출입 유통과정 간소화를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산업 단지 안에 마련된 자유무역구의 경우에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술집약적 산업 유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남광희·윤성훈, 2005) 언급되었다. 한국은 조세 감면에서 가장 큰 금액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고용보조금이나 분양가 차액 등에 대해서는 지원 실적이 미미한 편이다(김준동 외, 2009). 물론 기술 집약 산업에서 가장 큰 세금 감면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김준동 외, 2009), 기본적인 기반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혜택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여 재정적 인센티브와 금융/자금지원 인센티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국의 외국 자본 투자 유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다. 그 이유로는 외상투자지도목록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2007년에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전부터 중국은 중국 국가안보에 핵심이 된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한 외투를 제한하였으나(이지석·권중욱, 2010), 현재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생겨 외투 제한을 점점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17년 최초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여 목록에 명시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산업은 자유롭게 중

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규제를 2015년 대비 약 47% 감소시킴으로써(2017년판 외상투자지도목록의 경우 최초로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외국인투자규제 93개→63개로 축소) 보다 개방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 투자 지도목록이 만들어졌으나, 이제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다는 판단에서 그동안 투자 제한을 두었던 산업도 이제는 가능하도록 바꾸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L).

또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한국보다 먼저 이루어져 이미 관련 규정의 정비를 마쳤기 때문에 더 활발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중국은 1979년부터 대외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했다. 외국인 투자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한 1979년부터 촉진/지원 방식을 사용했고 2002년 이후부터 하이테크(High-Tech) 발전을 필두로 외자정책을 실시해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 정비를 통해 제한영역을 축소하고 외국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정 정비를 마쳤다. 2006년 초 발표된 1차 5개년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서 이미 외자이용방식의 다양화 등을 규정하였다(이지석·권중욱, 2010).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유무역구를 설치하고 해외 문호를 개방하여 높은 금융/자금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및 동북 지역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이후 중국의 투자유치정책은 낙후지역 개발 등,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이 목적 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있다(이성봉 외 4, 2005). 구체적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부지역 투자 외자기업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적용하였고, 동북지역의 경우 기계설비, 석유화학 등 8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우대하고 신규설비 구입시 증치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다방면에서 외국 자본 투자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이지석·권중욱, 2010). 예시로 고신구의 자유무역구 중 하나인 징룽국제광장은 한중창업단지로서 완전히 한국 자본으로 회사를(외자 독자 회사)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합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한국 기업의 지분이 최소 30% 이상을 넘겨야 설립을 허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자회사의 경우 세계 혜택에서는 합자회사와 차이가 있으나 외자회사 역시 증치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전보다 무역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띄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외국 투자 유치 정책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한계로 언급되었다. 특히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함께 만든 징룽국제광장의 경우 2017년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해 지원, 실행 정책 발표가 늦어지고 행사가 취소되는 등의 불편함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었다(G).

V. 시사점

5.1 창업의지가 높은 중국

인터뷰 결과, IT 업계의 소프트웨어 중심 창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 년 전 공무원 선호현상을 겪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먼저 BAT라 불리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중국 내 IT 대기업의 CEO가 모두 젊은 나이에 아이디어 기반 사업을 통해 빠르게 성공을 이룬 것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에서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었고 창업 성공 사례를 주변에서 접하기 쉬워져 창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부과기원과 같이 산학연계 창업 보육센터의 활동이 활발하여 창업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쉽게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국의 주정부-시정부-구정부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창업진흥 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경쟁 체계 역시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주정부의 '창신창업(創新創業)' 모토를 바탕으로 시정부, 구정부가 각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생적으로 창업정책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청두가 서부 내륙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 유통에 있어 베이징, 상하이보다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이 중요하지 않고 인력 위주로 진행되는 기술창업 위주 창업부흥 정책을 펼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리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술 창업 위주의 창업정신 고취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신기술 선호 현상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신기술 출시가 매우 빠른 기술창업 생태계와 새로운 기술과 제품 체험을 즐기는 중국의 국민성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천부통을 비롯한 청두 내의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중국 내 스타트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기업에서도 신기술 개발과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스타트업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5.2 개방적인 투자환경 조성

인터뷰를 통해 중국 내부의 투자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창업 초기비용을 조달할 때 자기자본이 아니라 벤처캐피탈, 민간투자자, 정부지원금을 비롯한 외부의 자본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은 창업 실패로 인한 비용과 창업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창업 실

패가 창업 생태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는 아이디어 기반 기술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이들의 창업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창업에 드는 비용 자체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창업 실패시에도 아이디어를 변형하여 본인이 재창업을 한다거나 아이디어를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대안이 존재하므로 실패로 인해 수반해야 하는 비용 역시 적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창업의 기회비용 역시 낮게 나타났는데, 넓은 일자리 풀 덕분에 창업에 실패한다고 해도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비교적 쉽고 재창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도 이전에 실패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창업을 하면 보다 나올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났다.

또한 중국의 투자자는 한국에 비해 위험회피도가 낮아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 시 용자와 같은 단기적 수단보다 합자, 지분투자자와 같은 장기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투자자들의 높은 위험회피도에 대한 이유로는 창업 초기 기업 평가 시 정량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 아직 창업 기업의 자금 회수 단계를 자주 겪지 못하여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 윈스톱 형식의 투자지원기관 부재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 자료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중국 창업생태계에도 BAT와 같은 대기업이 존재하고, 이들 역시 창업기업에서 시작하기는 했으나 현재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탓에 완전한 벤처주도형 창업생태계라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유니콘 기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틈새시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비교적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비슷한 지위 하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서 벤처주도형 창업생태계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관계는 대기업 주도형 창업생태계에 가까운 한국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 창업생태계에서는 민간투자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엔젤 펀드, 클라우드 펀드 형식의 민간투자자 활동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를 만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직접 창업보육센터를 찾아 특정 기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밝히거나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자의 활동이 많았다.

5.3 정부의 체계적인 창업지원정책 시행

한국의 창업지원정책은 지원금 위주로 진행되며 창업 초기 단계에 대부분의 지원금이 집중되어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창업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원

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창업 성숙도가 낮은 기업의 비중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중국의 창업지원정책 역시 지원금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별적인 과제를 지원하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보다 높은 투자 지원을 함으로써 단순히 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주거지원, 현지 사무실 지원, 해외 유학과 유치와 같은 네트워킹 확장을 위한 정책을 함께 펼침으로써 창업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한계점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창업지원정책 모두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관료주의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창업 인프라 조성 시 기술 관련 네트워크에 집중하여 기술, 행정 관련 빌딩을 건설하는 데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기술 네트워크를 넘어 일상에서도 네트워킹 효과를 얻어 스타트업의 창의성을 높이고 또한 창업생태계 외부인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도 새로운 환경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아파트, 문화시설과 같은 총체적인 창업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물론 중국의 모든 창업 인프라가 이러한 식으로 조성되지는 않았고 중국에서도 총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은 창업단지는 실패한다는 점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었으나, 해당 관점으로 접근하여 창업뿐 아니라 생활에 적합한 기반을 조성한 경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국 창업생태계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테헤란로에 집중되어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지리적 편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안에서도 성수, 상암과 같은 지역에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인터뷰를 통해 결과적으로 네트워킹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있는 생태계를 얻기는 어려웠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지자체마다 각자 자생적으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경제체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인터뷰에서 사천성 청두와 근접한 하이난성의 정부 관계자가 창업가를 찾아 보다 높은 창업 지원금을 제시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도 돋보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관계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중국 주정부의 ‘만중창업’ 정책이라는 큰 틀을 기반으로 성-시-구정부가 각자의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창업 정책을 펼치고 있고 청두 역시 내륙과 분지라는 지리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창업을 통해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환경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한국 투자 환경의 한계로는 규제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외국의 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지원센터가 없다는 점, 재정적 인센티브와 금융/자금지원 인센티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외상 투자 지도 목록이 업데이트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외국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한중창업단지 등의 창업 클러스터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때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목적 지향적 외국인투자유치 방식을 일찍이 사용하였고, 세계헤택과 자유무역구 설치를 동시에 시행하여 금전적인 인센티브와 창업인프라 관련 인센티브를 유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회사를 비롯한 외국 자본에 대한 장벽은 아직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중국 창업 지원 정책에서 정부의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중국의 정치적 변화로 인한 경영상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는 점 역시 중국 창업생태계의 단점으로 제시되었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 객관적인 환경과 주관적인 환경 모두를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창업가의 태도를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기회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중국의 사례를 통해 창업에 대한 객관적인 환경을 우호적으로 인식하여(오상훈·하규수, 2013) 창업가의 창업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아질 경우 창업의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객관적 환경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생계형에서 기술 창업으로, 기술 창업 내에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 창업으로 인식이 이동하는 것과 같이 보다 초기자본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창업에 대한 인식이 이동할 경우 창업의지가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창업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필요한 비용이 비교적 낮은 뿐 아니라 창업에 실패한 경우에도 실패한 아이디어를 다른 투자처에 판매하거나 재창업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의 잔존 가치가 비교적 높아 창업 실패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역시 줄어든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창업 보육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오상훈·하규수, 2013) 창업 시 초기 비용을 개인의 자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 캐피탈, 정부 보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어 창업과 취업 사이의 교차가 활발해 질 경우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질 경우 대학생 창업과 같은 젊은 창업가가 증가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벤처 캐피탈의 과감한 투자, 엔젤 투자자를 비롯한 민간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교류, 그리고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창업가들의 투자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야 창업생태계의 선순환구조(이대기, 2014)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에 있어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과의 협업, M&A에 앞장선다면 벤처주도형 벤처창업환경 모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벤처창업환경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목표를 네트워킹 효과 극대화를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로 삼고 직접적으로 창업생태계 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보다 구성원 사이를 연결하는 신뢰증개자로서 간접적인 지원을 늘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코리빙(Co-living) 개념을 반영한 행정, 기술과 주거, 문화가 결합된 통합형 창업단지 구성을 통해 단순히 기술 관련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까지 확장하여 네트워킹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 조성 정책을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로 창업 정책이 보다 구체적일수록 좋다는 점을 바탕으로 각각의 성공모델과 창업가의 특성에 맞춘 전문화된 창업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세 번째로 단순히 창업 초기에 창업 지원금을 집중시키기보다 스타트업의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창업기업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 단계에서도 창업 진흥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시키고 스스로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창업생태계의 지리적 편향성이 적고 자발적인 지자체별 창업생태계 조성 노력이 활발할수록 긍정적인 경쟁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는 나아가 창업생태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각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주력 산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그에 맞는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에 맞는 창업 지원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생태계의 지역별 차별화를 이끌어 내야 지역 간 긍정적인 경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구의 한계로는 첫 번째로 질적 연구 방식을 사용하여 인식적 측면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경제적 측면에 있어 M&A, IPO와 같은 재무적 측면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실증 분석이 진행된다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REFERENCE

- 고정민·김정호(2000). 벤처생태계의 형성과 진화. *CEo Information*, 240-1-23.
- 김갑·한상철(2003). 벤처기업의 경영전략 특성 및 성과에 대한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6(1), 3-24.
- 김성순(2009).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관한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김성훈·남정민(2016).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 연구. *벤처창업연구*, 11(6), 175-183.

- 김준동·강준구·김혁형·김민성·이성봉(2009).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개선방안*. KIEP 연구보고서, 09-04.
- 김태영·박제수(2006). 일본의 벤처생태계 발달과정 및 성과. *일본문화학보* 28, 489-507.
- 남광희·윤성훈(2005). 우리나라 FDI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경제연구*, 223-227.
- 박미진·김진희·정민선(2009). 진로상담: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1), 417-435.
- 박재환·박명수·김대엽(2012). 창업정책 현황과 창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32-144.
- 반성식·배근우·장성희(2013). 개인발명가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창업동기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6(6), 2655-2677.
- 배익건(2012). *개인발명가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 양영석·최종인·황보운(2012). '질 좋은창업의 개념정립과 창업교육 중심의 질 좋은창업육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벤처창업연구*, 7(2), 141-150.
- 양현봉·박종복(201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KIET 연구보고서, 2011-159.
- 오상훈·하규수(2013). 창업 환경 및 인식이 사업실패부담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8), 143-157.
- 오영택(2002). 학술연구: 우리나라 벤처의 생태환경 분석과 발전방향.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JSBI)(구 벤처경영연구)*, 5(2), 3-30.
-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 윤상호(2013). *창조경제 창조적 파파 그리고 기업가정신*. KERI Column.
- 이대기(2014). 금주의 논단: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과 개선점. *주간금융브리프* 23(23), 3-9.
- 이지석·권중욱(2010). 기업생태계 관점에서의 한중 FDI 정책비교 연구. *관세학회지*, 11(2), 259-277.
- 이재호(2015). 창업생태계의 국제간 비교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창업활성화 방안.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7-89.
- 이학노(2009).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 연구. *무역보험연구*, 10(4), 25-48.
- 장후석(2013).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창업을 두려워하는 사회-창업 열기를 북돋워야 한다-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VIP Report*, 545(단일호), 1-22.
- 정대용(1999). 창업과 사회 문화 요인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제경영연구*, 10(1), 59-85.
- 정대용·김영수(2000). 벤처기업의 창업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평가와 벤처생태계 모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 163-196.
- Bae, I. G.(2012).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and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A Master Dissertation, *Ky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1-57.
- Bahn, S. S., Bae, G. W., & Jang, S. H.(2013). The Effects of Individual Inventor's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Inten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6(6), 2655-2677.
- Casson, M., & Giusta, M. D.(2007).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apital: Analysing the impact of social Networks on Entrepreneurial Activity from a Rational Action Perspectiv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5(3), 220-244.
- Chung, D. Y.(1999). Articles: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ultural Dimensions.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10(1), 59-85.
- Chung, D. Y., & Young, S. K.(2000).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al Supporting Stages and the Ecosystem Model for Venture Companies. *Journal of Social Science*, 2, 163-196.
- Cuervo, A.(2005).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3), 293-311.
- Gnyawali, D. R., & Fogel, D. S.(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43-62.
- Greenberger, D. B., & Sexton, D. L.(1988). An Interactive Model of New Venture Initi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3), 1-7.
- Han, S. S., & Kim, G.(2003). Articles: The Performance and Implications of Venture Strategic Typology. *Advancing Small Enterprise Innovation Research*, 6(1), 3-24.
- Hyun, H. J., Kang, J. G., & Kim, J. D., Kim, H. H., & Jeong, H. G.(2008). *Korea's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blem and Measures to Improve it*. KIEP Research Report, 08-01.
- Jang, H. S.(2013). For Sustainable Growth: VIP Report; We Need to Encourage Social and Entrepreneurship Fever that is Afraid of Starting Businesses.: A Survey of the Public's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VIP Report*, 545 (single number), 1-22.
- Jung, M., & Kim, J. H.(2000).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Venture Ecosystem. *CEo Information*, 240-1-23.
- Keely, B. J., Prowse, W. G., & Maxwell, J. R.(1990). The Treibs Hypothesis: An Evaluation based on Structural Studies. *Energy & Fuels*, 4(6), 628-634.
- Kim, T. Y.. & Park, J. S.(2006). Development Process and Performance of the Venture Ecosystem in Japan, *Journal of Japanese Culture*, 28, 489-507.
- Kim, J. H., Jung, M. S., & Park, M. J.(2009).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1), 417-435.
- Kim, J. D., Kang, J. G., Kim, H. H., & Kim, M. S., & Lee, S. B.(2009).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KIEP Research Report, 09-04.
- Kim, S. S.(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nt of Entrepreneurs in Korea and China*, a doctoral dissertation,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Venture.
- Kim, S. H., & Nam, J. M.(2016).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atus and Recognition Research: Focusing 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

- Preliminary, Student Center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and Recogn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175-183.
- Lee, D. G.(2014). This Week's Theory: The Present State and Improvements of the Entrepreneurship in Korea. *Weekly Financial Brief*, 23(23), 3-9.
- Lee, H. L.(2009). A Study on the Role of Trade Insurance in the Export Promotion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0(4), 25-48.
- Lee, J. H.(2015).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ecurity Network and Activation Plan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AIK Conference*, 57-89.
- Lee, J. S., & Kwon, J. W.(2010). A Comparative Study on the FDI Policies between Korea and China at the Business Ecosystem.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1(2), 259-277.
- Martin, M. J.(1984). *Manag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Reston Pub. Co.
- Miller, D.(2011). Miller(1983) Revisited: A Reflection on EO Research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5), 873-894.
- Nam, K. H., & Yoon, S. H.(2005).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FDI Policy in Korea* Financial Economics Research, 223-227.
- Oh, S. H., & Ha, K. S.(2013).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tart-up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Mediated by Fear of Business Failu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8), 143-157.
- Park, J. H., Park, M. S., & Kim, D. Y.(2012).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 Policies and Measures to Revitalize Young Entrepreneu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art-up Ecosystem. *Korea Venture Foundation Association Journal of Spring Conference*, 132-144.
- Park, J. W., Park, M. S., & Kim, D. Y.(2012).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 Policies and Measures to Revitalize Start-up for Young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artup Ecosystem. *Management Education Research*, 27(5) 1-30
- Reynolds, P. D.(1992). Sociology and Entrepreneurship: Concepts and Contribu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2), 47-70.
- Sandberg, W. R., & Hofer, C. W.(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5-28.
- Schumpeter, J. A.(1934). *Change and the Entrepreneur. Essays of JA Schumpeter*.
- Tansley, A. G.(1935). The Use and Abuse of Vegetational Concepts and Terms. *Ecology*, 16(3), 284-307.
- Ucbasaran, D., Westhead, P., & Wright, M.(2009). The Extent and Nature of Opportunity Identification by Experienced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2), 99-115.
- Winter, S. G.(1984). Schumpeterian Competition in Alternative Technological Regime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3-4), 287-320.
- Yang, H. B., & Park, J. B.(2011). Creating and Activating the Youth Startup Environment. *KEIT Research Report*, 2011-159.
- Yang, Y. S., Yang, S. H., & Hwang, B. Y.(2012). The Study to Th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Youth Entrepreneurship Promotion Policy Paradigm to Create 'Good Quality Youth Startu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3), 167-179.
- Yoon, N. S.(2012).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2), 1537-1557.
- Yoon, S. H.(2013). Creative Economy and Entrepreneurship: Between Creative Destruction and Destructive Creation. *Other Publications from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Young, T. O.(2002). Articles: An Analysis on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Evolution of Ventures in Korea. *Advancing Small Enterprise Innovation Research*, 5(2), 3-30.
- Zahra, S. A., & Covin, J. G.(1993). Business Strategy-technology Policy and Firm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6), 451-478.

Comparative Study of a Startup Ecosystem in Seoul, Korea and Chengdu, China*

Hyejin Kwak**
Mooweon Rhee***

Abstract

While strong investments on startup and venture ecosystem prosper worldwide, growing interest on nurturing startup ecosystem in Korea is also on its way. However, Korean entrepreneurial ecosystem currently results in few successful business models with those continuous developments of itself compared to the one in China, which is breeding more than 50% of unicorns internationally.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how people in the venture ecosystem, especially in the IT industry, feel about themselves and startups and compared startup ecosystems in Seoul, Korea to the one in Chengdu, China, considering each of economic, soci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s. The study tried to provide an implication about the future orientation of Korea's startup and venture ecosystem to policymakers and those inside the environment to make a better one.

Therefore, the study chose Seoul, Korea and Chengdu, China as geological specimens of startup ecosystems and conducted qualitative studies by interviewing selected individuals who work in startup incubators, accelerators specified to the IT industry and started their own businesses in the IT industry funded by startup reward programs. The study categorized the results into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parts and screens whether the interviewees from both Korea and China have similar opinions toward each of the questions and can be translated to have tendencies or not in each part of the study.

According to the study, the national recognition of startups should be moved from means of maintenance such as restaurants, franchise businesses to IT startups especially based on software businesses for the sustainable flourish in the Korean venture ecosystem. Investors including accelerators, angel investors, and VCs should be less risk-averse and therefore prefer stake purchases to solely giving subsidies. The role of governors should be limited to be a middleman of the network, connecting each person in need inside the ecosystem and their reward programs should focus on nurturing the growing ones, not just multiplying the numbers of startups to expand the size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Since this study indicated that entire revisions of startup ecosystems should be applied to make a better one, it could be used to design future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and the ways of activating startup ecosystems elsewhere in Korea.

Keywords: Startup, Startup Ecosystem,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 This study is fully funded by the project 'uGet; A Study on Advanced Startup Ecosystem', YVIP (Yonsei Venture and Innovation & Startup Program).

** First Author, Undergraduate Student,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sugarpic0401@naver.com

*** Co-Author,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mooweon@yonsei.ac.kr

<Appendix 1> 인터뷰 질문/기획서 중국어 번역본

中国与成都的创业生态系分析研究

- 以中国成都的移动IT产业初创企业为主

1. 研究调查目的

探究中国初创企业的创业生态环境

分析成都的创业生态环境以及有关因素之间的关系

比较韩国与中国(尤其成都)的创新精神, 创业教育和创业生态系环境

为韩国的决策者, 企业和教育机构提供崭新的战略和政策

2. 研究主题

成都创业现状

中国政府, 四川成以及成都市的创业扶持政策方向

分析成都市孵化器的运营模式

研发与韩国的创业合作方案

3. 研究方法

访谈韩/中创业者

访谈韩/中孵化器从业者

调查大学生对创业的认识

4. 研究问题

- 关于孵化器

介绍一下你机关现在进行的创业抚育项目。

请你讲述你机关扶持的初创企业当中印象最深刻的一个。

你机关的资助规模多大? 回收率大约多高? 你对此数值满意吗?

筛选标准有哪一些方面?

- 关于创业

你认为什么因素对创业有最大的影响力?(如: 创业者的才能, 资本等等)

有没有中国创业家独有的特征?

你认为最近大学生(潜在的创业者)对创业有很大的兴趣吗?

关于创业生态系

你怎么评价创业生态系对企业发挥的影响力?

认为中国的创业生态系对创业者有利吗?

至于创业, 成都擅长哪一些部分?(如: 政策, 资本)

在成都初创企业与大企业的关系形成得怎么样?

中国创业生态系的好处与坏处?

大企业与初创企业的关系可以说是相生吗?

如果不是的话, 你认为为此最需要的是什么?

- 关于资助(funding)

你觉得中国政府的创业扶持政策有实效吗?

中国的funding环境可以说是稳定吗?

除了政府以外, 给予企业资助的机关多不多?

你机关现在资助几个初创企业? 它们的规模多大?

你机关的投资金的主要来源是哪里?

关于移动IT行业与此初创企业

中国移动IT初创企业的生存率? 收益率?

中国移动IT产业的前景怎么样?

你向那些想要进入移动IT产业的潜在创业者想告诉/建议什么?

<Appendix 2> 인터뷰 질문/기획서 영어 번역본

Analysis of venture ecosystem in Chengdu, China

- Focusing on mobile IT startups

1. The purpose of our research

To explore the venture ecosystem of startup companies in China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environment and its elements in Chengdu, which is one of the startup hubs in China

To compare Chengdu's entrepreneurship discipline, startup training, and venture ecosystem to the ones of Korea

To apply positive aspects of startup environment in Chengdu, China to schools, enterprises, and government in Korea

2. The theme of the research

Current state of startups in Chengdu

China and Chengdu's policies to assist business startups

Analyzing the supporting process of incubators and accelerators in Chengdu

Building up cooperative business startup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3. Research Methodology

Interview with Korean/Chinese startup founders

Interview with practitioners of startup incubators and accelerators

Survey the recognition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s buliding a startup

4. Survey questions

- About the incubator

Could you briefly explain your institution's current incubating

program?

Can you explain one of the most impressive startup you've ever supported?

Can you tell me the scale of funding and ROI today? And are you satisfied with these figures?

What are your criteria when you choose which enterprise to fund?

- About starting a new business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uccessful startup?

What do you think a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hinese entrepreneurs?

Do you think that college students today have much interest in starting their own business?

About the venture ecosystem

How significant do you think is the venture ecosystem to the enterprises?

Do you think Chinese venture ecosystem is friendly to entrepreneurs?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advantageous factor for startups in Chengdu?

How do you like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s and large enterprises in Chengdu or China?

What do you find the most positive and the most negative part of venture ecosystem in China?

Do you think that startups and large enterprises are in relation of coexistence? If not, what do you think is needed for it?

- About a funding system

How effective do you think is the supporting policies of Chinese government?

Is Chinese funding environment well established?

Are there many institutions funding startups except government?

Can you explain the number and size of startups that you are currently funding?

Can you explain the main source of funding?

About the startups in the mobile IT industry

What is the survival rate and ROI of IT startups in your institution?

How do you prospect the mobile IT industry of China? And especially for the startups?

What do you want to advise the potential business starters who want to enter the mobile IT industry?